

萬葉假名(만요우가나) 氣에 대하여

김대성*

목 차

- | | |
|-----------------|-------------------|
| 1. 서 론 | |
| 2. 선행연구 | 4.2 방언형과 東歌의 시기구분 |
| 3. 萬葉集 이외 문헌의 氣 | 4.3 음차자 氣의 분석 |
| 4. 萬葉集의 氣 | 5. 한국 자료의 氣 |
| 4.1 3399번의 久都波氣 | 6. 결 론 |
-

1. 서 론

日本古典文學大系本 萬葉集三(1960:45)의 보주(補注)에는 다음과 같은 설명이 있다.

われわれの調べたところでは、万葉仮名の清濁は、清音と濁音との書き分けの比較的厳密なカとガ、クとグ、サとザのようなものと、清濁の書き分けの悪い、ケとゲ、ヘとベ、テとデの如きがある。「氣」はケとゲ、「倍」はヘとベ、「豆」はテとデとに両用されていて、区別がない。

즉 萬葉集(만요우슈우)¹⁾의 청탁 표기자로 엄격한 구별표기와 느슨한 구별표기가 공존하는데, 특히 후자의 경우 萬葉假名(만요우가나) 氣·倍·豆가 각각 케·게, 헤·베, 테·데의 표기로 사용되어 구별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주장은 萬葉集를 검토해보면 분명히 정당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와

* 전남대학교 부교수 고대일본어

1) 일본어 우리말 적기는 필자의 표기법을 따르기로 한다. 김대성(2003:106-107) 참고.

같은 공존에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지는 않았을까? 결론적으로 氣에 관해서만 말한다면, 청탁의 혼용은 萬葉集의 시기구분에 따라 분명한 차이를 보여준다는 사실이다.

본 논문에서는 상대 자료 즉 금석문, 古事記(코지키) 가요, 日本書紀(니혼쇼키) 가요와 훈주(訓注), 萬葉集, 仏足石歌(붓소쿠세키가) 그리고 歌經標式(카쿄우효우시키) 등을 토대로 만요우가나 氣의 사용 실태와 氣가 케乙類와 게乙類로 공존하는 이유를 밝히고자 한다. 그리하여 그 결과를 통해 다음 연구과제인 止攝 微韻의 중고 재구음(中古再構音)을 본격적으로 추정하는 근거 중의 하나로 삼고자 한다.

2. 선행연구

기존의 연구에서는 氣만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연구가 이루어진 것은 없다. 이미 앞에서 인용한 수준의 설명이나, 大野透(오오노 토오루 1962:75)는

氣はケ乙の古層の假名及びキ乙の中間層乃至新層の假名に用ゐられてゐる。氣は居に次いでケ乙の假名に常用される様になり、8世紀には居を壓倒するに至つてゐるので、ケ乙の外にキ乙の假名にも用ゐられるのは異例の用字であり...

와 같이 키乙類로 氣가 사용된 것은 이례(異例)로 보고 있거나, 森山隆(모리야마 타카시 1971:197)는 나라시대(奈良時代) 이乙類의 모습 음가 추정시 微韻에 속한 氣를 여러 예 중의 하나로

まづ注意すべきはキ(乙)音節表記假名に微尾未韻開口字の見えぬことである。これは同韻開口字が偶然に使用されなかったのではなく、ケ(乙)音節表記の假名としてふさはしかったからである。すなはち微尾未韻開口字「既氣希」はケ(乙)、「衣」はエ(乙)に、すでに上宮記逸文(氣希など)あたりから使用されてゐて、キ(乙)に使用されるやうになったのは「幾」(記・地名)「幾機氣」(紀歌謡)「既」(紀訓注)などの少数例であつて、キ(乙)音節表記假名の主要字母ではない。

와 같이 언급하고 있을 뿐이다.

한편 을류의 케(氣)에 대하여 時代別國語大辭典上代編(1994:279)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け[氣](名)あるものから発する精氣。ものの氣配。「竈には火氣吹き立てず」(万892)

「塩氣立つ荒磯」(万1797)「刀禰らが焚く火の介」(神楽湯立歌)「穢ケキタナシ」(名義抄)【考】漢語「氣」の音(名義抄に「氣イキ、ケハヒ、禾ケ」とある)に由来するといわれる。平安時代にはその複合語の種類も多く、独立して「けも無し」などとも用いられるが、上代では接辞ふうの例ばかりで、数も少ない。

즉 氣의 의미 그대로 쓰인 乙類의 케에 대한 설명으로, あるものから発する精氣・ものの氣配와 같은 의미로 사용된 것은 한어 즉 고대 중국어의 음에서 유래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와는 반대로 佐藤通次(사토우 츠우지 1976:73)²⁾는 火の氣(ホノケ)・煙(ケブリ) 등의 케가 氣로 표기된 것은 일본 고유어 카·키·케의 키·케가 한자 氣와 음과 의미가 우연히 일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상과 같이 만요우가나 氣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가 아직 미진한 상태이고, 을류의 케의 성격에 대해서도 정설이 없는데, 후자의 경우는 음독자 또는 훈독자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음차자를 다루는 본고의 연구 범위에 벗어나므로 소개하는 수준에서 머물고, 전자에 대하여 용례수의 차이에 의하여 萬葉集 이외의 문헌과 萬葉集로 나누어 본격적으로 분석해 보기로 한다.

3. 萬葉集 이외 문헌의 氣

스이코유문(推古遺文)에는 다음과 같이 3예가 보인다.

伊波己里和氣(上宮記逸文)
止余美氣加志支夜比賣(上宮聖德法王帝說)
阿遲加氣爾³⁾(上宮聖德法王帝說)

앞의 두 예는 인명표기이며 뒤의 1예는 아ぢ카케의 케표기로 사용되었다. 3예 모두 케乙類의 표기로 쓰였다.

古事記(코지키) 가요에는 총 27예가 보이는데

2) 【き、け(氣)】右のイキナシ、イトケナシ("甚だ愛らしい")のキ、ケには漢字「氣」が用ゐられる。このキ、ケは漢字「氣」の音から出てゐるとする説もあるが、わたくしは賀茂百樹に従つて、カ、キ、ケは同系で、純粹の日本語であり、キが漢字の氣おんぎと音義ともに偶然に暗合したものと見る。すなはち「香」は"氣(カ)"の義、カ「釀ス」は"氣蒸す"である。また「酒」(黒酒、白酒)も"氣"であり、「息」は"息氣"であり、「萌ス」は"氣刺す"である。ケの音では「火の氣」氣延(氣配と当字する)煙("氣振")氣高しなど。pp.129-130도 참고.

3) アヂカケニ의 케는 케의 가능성도 있다; 氣 歌謠3의 阿遲加氣는 未詳의 表記でありながら、この氣は普通濁音に讀まれてゐるが、一往清音と見るのが妥當である。(大野透:605)

상권:比氣登理能/和賀比氣伊那婆

중권:伊麻須氣爾許泥/多知波氣麻斯袁/,宇美賀由氣婆/波陀阿可良氣美/宇多多氣陀邇/余佐美能伊氣能

하권:佐氣都志摩(麻)美由/波夜夫佐和氣能/阿米邇迦氣流/波夜夫佐和氣/氣那賀久那理奴/加賀美袁加氣/麻多麻袁加氣/伊久美陀氣淤斐/多斯美陀氣淤斐/伊久美陀氣/多斯美陀氣/比氣多能/袁牟漏賀多氣爾/比賀氣流美夜/多氣能泥能/許能多氣知爾/比禮登理加氣弓/伊邪本和氣/夜氣牟志婆加岐

와 같이 모두 케乙類로 쓰였다.

日本書紀(니혼쇼키) 가요와 훈주(訓注)에는 총 11예가 보인다. 그 예를 모두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가요:居氣辭被惠爾(こきしひゑね 권3)/居氣儂被惠爾(こきだひゑね 권3)/波椰步佐和氣能(はやぶさわけの 권11)/等枳舍氣帝(ときさけて 권13)/佐須陶氣能(さすたけ의 권22)/氣菟能和區吳能(けつのわくご의 권23)

훈주:保食神<此云>宇氣母知能加微(うけもちのかみ)/誓約之中<此云>宇氣警能美儺箇(うけひのみなか)/吹棄氣噴之狹霧<此云>浮枳于都屢伊浮岐能佐擬理(ふきうつるいふきのさざり 이상 권1 神代上);屯倉<此云>彌夜氣(みやけ 권6)/祈狩<此云>于氣比餓利(うけひがり 권9)

가요에는 6예 중 4예가 케乙類로, 2예가 키乙類로 사용되었다. 大野透는 키乙類로 氣가 쓰인 것은 이례(異例)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중국 북방음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보인다. 즉 氣(키乙類)는 당시의 중국 북방음의 반영으로 추정된다. 다만 a群이 아니라 두 예 모두 β群의 가요에 보이는 것은 β群은 a群과 β群에 쓰인 만요우가나가 섞여 있기 때문이다. a群에만 쓰이는 경우에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이상 β群에 사용된 만요우가나는 원칙적으로 a群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훈주의 경우 イフキ의 훈독자 표기로 사용된 氣噴 이외에 4예 모두 가요와 마찬가지로 케乙類로 사용되었다.

日本書紀의 특징은 첫째, 케乙類 이외에 키乙類로 2예가 쓰였으며, 둘째 氣가 탁음으로 즉 게乙類의 표기로 사용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특히 전자의 경우는 본고에서 자료로 사용하고 있는 상대 문헌 중에서는 유일하게 키乙類로 사용된 것이다.

氣는 상고음의 선진시대(先秦時代)에는 物部 개구 3등에 속했던 자로 王力(왕리 1985:155)⁴⁾에 의하면 長入聲字이었던 氣가 위진남북조시대(魏晉南北朝時

4) 物质两部的长入声字,到魏晉南北朝变为去声 分別转入微脂灰祭四部。例如「气费」转入微部、「弃醉」转入脂部、「对碎」转入灰部、「计戾」转入祭部。

代)에 거성이 되면서 후에 微部로 변하여 중고음에는 微韻이 된 것이다. 周祖謨(저우주뤄 1996)⁵⁾에 의하면 삼국시대와 위진남북조시대에는 脂部에 속했다. 따라서 氣는 物部⇒脂部⇒微部の 변화를 겪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氣가 キ乙類로 불과 2예만이 보이는 이유는 무엇일까? 日本書紀에서 キ乙類로 쓰인 자는 之韻字인 基己紀(ギ乙類로는 疑擬가 있다)로 基와 己는 각각 α群에서만 4예와 1예가 보이며, 紀는 α群 5예, β群 9예가 보인다. 微韻字로는 機(1예)와 幾(1예)가 β群에만 나타난다. 따라서 氣를 포함한 微韻字는 β群군에만 나타나기 때문에 당대 북방음(唐代北方音)으로써 나라시대 キ乙類의 음으로는 적합하지 않았으며, 之韻字(基己紀)가 キ乙類의 음으로 가장 적합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ケ(ゲ)乙類로만 쓰인 氣가 日本書紀에서 비록 β群이기는 해도 2예가 보인다는 사실은 매우 의미가 크다. 북방 중국인의 개입이 분명한 α群에서는 氣의 사용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즉 중국인의 귀로는 당시 일본어의 키乙類가 之韻字에 가깝고 微韻字는 상당히 동떨어진 소리로 파악하였지만, 일본인의 표기로 추정되는 β群에서는 케乙類만이 아니라 키乙類로도 사용된 것은 일본인의 귀에는 당대 북방음이 케乙類 보다는 키乙類의 음에 더 가까이 微韻字가 변해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사실은 당대 북방음의 재구에 일정 부분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는데 이와 같은 중고 재구음에 대한 분석은 다음 연구 과제로 미루고 다시 본 주제로 돌아가기로 하자.

日本書紀에서 氣가 ケ乙類나 ギ乙類로 즉 탁음으로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당대 북방음의 탁음청화(濁音清化)에 의해 탁음 성모 [g]가 청음 [k]로 변화하여 부득이 청음자나 차청음자로 탁음을 나타내는 일이 일어났지만, 日本書紀에서는 보다 더 음에 충실한 표기를 한 결과, 청탁성모(疑擬)인 [ŋ]가 ガ行 자음을 대신하였기 때문이다.

나라유문(奈良遺文)인 佛足石歌碑(753년)에는 다음과 같이 佛(ホトケ)의 케 표기로 1예가 나타난다.

乃知乃保止氣余(のちのほとけに)

나라시대 말기에 편찬된 것으로 추정되는 歌經標式에는 총 13예(케乙類 7예, 게乙類 5예, 케甲類 1예)가 보이는데 다음 장에서 설명하기로 한다.

마지막으로 헤이안유문(平安遺文)인 神護寺鐘銘(875년)에는

5) 중국어 우리말 적기는 씨케이시스템(김용옥 1992:349-361)에 의한다.

檀越,少納言從五位上,和氣朝臣彝範,悼和尚之遺志,尋先祖之旧蹤,以貞觀十七季八月廿三日,雇冶工志我部海繼,以銅一千五百斤,令鑄成焉。

와 같이 인명 ワケノアソノツネノリ 의 ヶ 표기로 1예 보인다. 이미 상대특수카나사용법(上代特殊仮名遣い)이 붕괴되었기 때문에 갑을류의 구분은 무의미하지만 ワケ 의 표기로 보아 ヶ 乙類 표기의 잔재로 추정된다.

이상과 같이 萬葉集을 제외한 상대 문헌 자료의 氣의 사용은 日本書紀 キ 乙類 2예와 歌經標式的 ヶ 乙類 5예, ヶ 甲類 1예를 제외하고는 모두 ヶ 乙類의 표기로 사용되었다. 따라서 氣는 ヶ 乙類 표기의 전용자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萬葉集 내에서는 氣가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다음 장에서 검토해보기로 하겠다.

4. 萬葉集의 氣

이 장에서는 먼저 3399번 가요의 久都波氣의 氣가 갑류인지 을류인지 검토해 보고, 이어서 방언형의 ヶ 와 東歌(아즈마우타)의 시기구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살펴보기로 한다. 그런 후에 萬葉集에 사용된 음차자 氣의 사용 실태에 대하여 검토해 보기로 한다.⁶⁾

4.1 3399번의 久都波氣

萬葉集 권14 東歌의 3399번 가요를 보면 다음과 같다.

信濃道者 伊麻能波里美知 可里婆祢爾 安思布麻之奈牟 久都波氣和我世(信濃道は今の壑道刈株に足踏ましなむ履着けわが背)

이 가요에 대한 萬葉集三(1960:420)의 주석을 보면 “信濃道は新しい壑道です。きつと切株を踏むでしょう。履をおはきなさいわが背子よ。”와 같이 久都波氣 부분을 履をおはきなさい로 파악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동사 波氣를 おはきなさい로 해석한 것을 보면, カ行四段 활용동사 はく 의 명령형이므로 상대특수카나사용법에 의하면 갑류에 속하기 때문에 을류인 氣의 사용은 위례(違例)이다. 또한 時代

6) 萬葉集에는 氣가 훈독자 또는 의훈자(義訓字)로 イキ (息 19회)· キリ (白氣 1회)· ホケ (火氣 3회)· シホケ (塩氣 2회)가 있으며 가요의 내용이 미상인 가요가 莫囀圓隣之大相七兄爪謁氣(1-0009 額田王)와 같이 1예 보인다.

別國語大辭典上代編(1994:281)은 다음의 권14 3356번 가요의

不盡能祢乃 伊夜等保奈我伎 夜麻治乎毛 伊母我理登倍婆 氣爾餘婆受吉奴(富士
の嶺のいや遠長き山路をも妹がりとはば日に及ばず來ぬ)

ケニヨブ의 설명에서 ‘「氣」は「履波氣吾が背」(万3399)の一例をのぞき、万葉東歌全体を通じて乙類の位置に現われるので、いまの場合も乙類とみなせば、日ニ及ブ説が最も穩当か。’와 같이 履波氣의 氣를 갑류로 사용된 것으로 보고 있다. 물론 是く(p.574)의 설명에서 3399번의 氣의 사용은 東歌에서 ケ甲類가 케乙類로 사용된 예가 없다는 것을 근거로 4단동사의 명령형이 아니라 하2단동사의 명령형이라는 설을 제시하고는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갑류로 사용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이 3399번의 4단동사의 명령형이라는 설에 대하여 後藤利雄(고토우 토시오 1963)는 東歌에서는 을류의 케·へ·메가 쓰여야 하는 경우 갑류의 케·へ·메가 사용된 예는 있어도, 그 반대의 경우 즉 갑류의 케·へ·메가 쓰여야 하는 경우에 을류의 케·へ·메로 쓰인 萬葉假名字는 없다는 것을 근거로 3399번의 波氣는 하2단동사의 명령형이라는 설을 제기하였다. 그의 설에 의하면 4단동사의 是く는 人が何かを身につける時に言う言葉이며, 하2단동사의 是く는 人が何かを物や動物などにつける場合に言う語로 의미가 구별되며, 가요 내용의 배경을 고려할 때 信濃道者라고 시작하는 것은 信濃에 새롭게 길이 개척되어 더러 나무그루터기 등에 의해 맨발로 걸다가 발이 다칠 수 있으므로 신발이 필요하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작자는 信濃에서 어느 정도 떨어져 있다는 점, 그리고 일반 서민들은 먼 길을 떠날 때 보통 길에서 신발을 신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점 등을 제시하여 다음과 같이 是く를 구별하고 또한 해석하였다.

- a クツ ハケ甲 クツをはけ。
- b クツ ハケ乙 クツを荷物などにくくりつけろ。

○信濃道は新しく切り開いた道です。切株にきつと足を踏みつけなさるでしょう。だから履を荷につけて(持つて)行きなさい、あなた。

이에 대하여 澤瀉久孝(오모다카 히사타카 1990:80-82)는 後藤利雄의 하2단동사설에 동의하면서 佐伯梅友(사에키 우메토모)의 하2단동사의 사역성을 근거로

四段の動詞を下二段活用にする時に使役的意味を持つ事は前(3362)に述べたところであり、「衣着せましを 大刀佩けましを」も上の「着せ」と同じく、「大刀を佩かせましを」の意であり、今の「沓佩け」も「沓を佩かせ」ととるべきもので、上に「足踏ましなむ」とあるをうけて、その「足に」といふ言葉を補つて「沓を佩かせ」ととればよい。後藤氏の解はよく考へられた説のやうであるが、「荷につけて(持つて)」と補はれるのは少し無理であらう。(p.82)

와 같이 의미의 관점에서 4단동사가 하2단동사가 되면 사역적인 의미를 지니게 되기 때문에 ‘(발에)신발을 신기세요’(즉 ‘신을 신으세요’가 아님)가 後藤利雄의 ‘신발을 짐에 (넣어서)/짐으로 가지고 가세요’ 보다 낫다고 주장하였다.

佐伯梅友의 사역성에 제시된 4단동사와 하2단동사로 쌍을 이루는 동사의 예는 はく・かづく・うく・むく・います・みつ・たつ・うかぶ・いる인데 여기에 澤瀉久孝의 なく를 추가할 수 있다. 이 동사들은 はく를 제외하면 모두 4단동사:하2단동사 즉 자동사:타동사로 이루어져 타동사에 사역적인 의미가 있는데, はく만이 타동사:타동사로 쌍을 이루고 있다. 그러므로 後藤利雄은 위와 같은 해석을 한 것 같은데, 4단동사:하2단동사의 쌍이 타동사:타동사로 나타나 하2단동사에 사역적인 의미로 쓰인 예로는 ‘多妣由伎母 之思良奴伎美乎(旅行きも 爲知らぬ君を 17-3930 坂上郎女)·妻戀爾 己我當乎 人爾令知管(妻戀ひに己があたりを人に知れつつ 8-1446 大伴家持)’와 같이 しる를 들 수 있다. 따라서 하2단동사에 사역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 확실하므로 필자는 澤瀉久孝설에 동의한다. 다만 澤瀉久孝는 3399의 해석을 ‘信濃道は、新しく拓いた道です。切り株で足をおつきなるでせう。(その足に)沓をおはかせなさい。あなたよ。’로 하였는데, 필자는 이 해석을 ‘(信濃道に至ればその足に)’와 같이 보충하고자 한다. 그러면 하2단동사 はく의 명령형의 사역적인 의미가 보다 뚜렷하게 드러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상과 같이 3399의 氣가 ケ甲類가 아니라 ケ乙類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氣가 萬葉集 내에서는 모두 ケ(ゲ)乙類로 쓰였다고 단언할 수 있을까? 萬葉集를 모두 검토해 본 결과 적어도 중앙어(中央語)의 표기에서는 그렇다고 할 수 있지만, 東歌나 防守歌(사키모리우타) 등의 방언형이 존재하는 가요 내에서는 사정이 조금 복잡하다. 그러면 氣의 표기 중에서 중앙어와 다른 방언형의 표기에 사용된 예에 대하여 간단히 살펴보기로 하자.

4.2 방언형과 東歌의 시기구분

다음 가요를 보면,

多多美氣米 牟良自加已蘇乃 波奈利蘇乃 波波乎波奈例弓 由久我加奈之佐(疊薦
牟良自が礪の離磯の母を離れて行くが悲しさ 20-4338)
知知波波我 可之良加伎奈弓 佐久安例弓 伊比之氣等婆是 和須禮加祢豆流(父母
が頭かき撫で幸くあれていひし言葉ぜ忘れかねつる 20/4346)

와 같이 4338의 タタミケメ(コモ)와 4346의 ケトバゼ(コトバゼ)의 氣의 사용은 防守歌로써 駿河國(스루가국)의 방언 표기이다. 福田良輔(후쿠다 료우스케 1980:277-278)에 따르면, 이 두 예는 고대어계 중앙어에 존재하는 음절결합법칙 내지 경향, 즉 중설모음과 중설모음은 결합단위를 구성하는 것을 기피한다는 사실과 정면으로 위배된다. 고대어계 중앙어에는 *ë-ë*의 결합은 전혀 존재하지 않으며, *ë-ö*의 결합은 극히 드문 현상이므로 ケメ/*kēmë*/와 ケトバ/*këtöba*/의 氣의 표기는 이 방언에 모음조화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방증한다. 한편 相模國(사가무국)의 防守歌인 20-4330에는 ケフ(今日)의 ケ의 표기자로 氣가 사용되었으나, ケフ의 ケ는 갑류이므로 이 방언에서는 エ의 갑류의 구분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중앙어에서는 갑류이어야 하지만 을류의 氣로 표기된 가요에는 20-4347(奈我波氣流·ハケ甲ル), 20-4368(佐氣久阿利麻弓·サケ甲ク), 20-4404(多延爾氣流可母·タエニケ甲ルカモ)가 있다. 또한 형용사의 미연형과 이연형의 활용형 어미인 ケ는 갑류인데 萬葉集에서는 다음과 같은 예가 보인다.

伊麻紘久夜之氣(今ぞ悔しけ 20-4376 川上老 栃木)
阿志氣比等奈里(惡しけ人なり 20-4382 大伴部廣成 栃木)
奈賀氣已乃用乎(長けこの夜を 20-4394 大伴部子羊 千葉)
宇都久之氣(愛しけ 20-4414 大伴部小歳 埼玉)
須美與氣乎(住み好けを 20-4419 物部眞根 埼玉)

모두 권20의 防守歌의 예로 5예가 栃木(2예), 千葉(1예), 埼玉(2예)의 방언형으로써 형용사의 연체형 표기에 氣가 사용되었다. 특히 埼玉 방언형에는 古布志氣毛波母(戀しけもはも 20-4419 物部眞根)와 같이 연용형의 표기에도 氣가 사용된 것이 특징이다.

이상의 예를 제외하면 氣는 모두 ケ(ゲ)乙類로 사용되었는데⁷⁾ 본고에서는

7) 萬葉集에서 氣가 사용된 어휘를 모두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숫자는 빈도수).

あきづく3·あきらけし1·あく11·あけさる1·あさけ3·あしけ1·あとりかまけり1·あまかく1·あるく1·いけ2·いけみづ2·いそかげ1·うく1·うけすう3·うつくしけ3·うらなく3·うゑだけ1·おく1·かきなぐ1·かきむく1·かく12·かげ5·ひかげ2·かける1·かそけし2·かたぶく1·かたまく2·かたりさく1·かづく1·かみつけれ11·かりそく2·きく6·くさかげ1·くしげ6·くやしけ1·け31·けだ1(氣太神宮)·けだし5·けづる1·けとば1·けによぶ1·けのこり1·けひのうみ(지명)1·けふ1·けり1·こころつく1·こすけ4·こ

이러한 예들도 편의상 ㄱ乙類로 분류하기로 한다. 그 이유는 본고의 주된 목적이 갑을류의 혼용이 아니라 청탁의 구별표기의 이유가 무엇인가를 밝히는 데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권14 東歌의 경우 萬葉集의 시기구분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본고의 주된 목적의 하나가 萬葉集의 시기구분에 따른 氣의 사용 실태를 밝히는 것이기 때문이다. 東歌에 대해서는 편찬자가 누구인가 하는 문제나 東歌의 자료는 어떠했을까하는 문제가 萬葉集의 시기구분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지금까지의 연구에 의해 자료를 모으고 기록한 사람은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며, 자료가 된 문헌 또한 여러 가지이었을 것으로 밝혀졌다. 전자의 경우 坂本信幸(사카모토 노부유키 1970)는 東歌가 東國의 민요라는 설과 민요가 아닌 東國 민중의 서정시라는 설에 대하여 민요와 서정시의 양면성을 지닌 것으로 보고, 그 근거로 東歌 내의 掛詞(카케코토바)의 발달은 구송(口誦) 즉 민요에서 문자화(기록화) 즉 서정화(이 과정에서 短歌體를 지향함) 과정 속에서 생긴 것이며, 또한 그 과정에 大伴家持(오오토모노 야카모치)의 개입이 고쳐쓰기(書き改め)만이 아니라 히키요쯔와 요쯔의 편중된 사용 등과 같이 바뀌옴기(詠み変え)의 흔적이 나타난 것으로 추정하면서 東歌의 편찬자를 大伴家持로 규정하였다. 후자의 경우 福田良輔(1952)는 권14에 사용된 抱(ホ)·西(セ)·斯(シ)의 사용빈도를 검토하여 抱가 사용된 가요 내에서의 斯(38.5%:3.53%)와 西(66.7%:25.4%), 그리고 西가 사용된 가요 내에서의 抱(66.7%:19.4%)와 斯(21.4%:3.53%)의 빈도율이 抱와 西가 쓰이지 않은 가요에 비하여 압도적으로 높다는 것을 근거로 抱·西·斯가 사용된 가요는 東人(아즈마비토)가 지은 것으로 동일자의 표기로 보이는 자료로 추정하였다. 品田悦一(시나다 요시카즈 1986)는 방언적 요소의 유무에 의해 I 군을 상대특수카나사용법의 위례나 모음 내지 자음이 방언적 어형으로 나타난 예(訛例)가 없는 것(I 군A)과 있는 것(I 군B), I 군A 중에서 I 군B에 중복되지 않는 것을 I 군 AS로, 그리고 西(セ)·斯(シ)·抱(ホ)·賀(ガ)·提(テ)·騰(ト)·那(ナ)·馬(メ)가 특정 가요에 편중되어 원자료(原資料)가 음차자 중심으로 파악되는 II 군과 같이 원 자료를 최소한 4개의 군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하였다.

とあげ1・ことむく1・こふしけ1・さけ2・さけく1・さすだけ1・さづく1・さやけし6・しげ1・しげし14・しげみ2・しげり1・しづけし1・しまかけ2・しらひげ1・すげ1・すむやけし1・すりつく1・そでつけごろも1・たく1・たく(하2단동사)2・たけ(竹)1・たけ(岳)2・たしけし1・たすく1・たたみけめ1・たひらけし3・たむけ2・つく1・つく(하2단동사)3・つぐ14・つつく1・つみあく1・つゆわく1・ときさく5・とく1・とひさく1・とほそく1・とりつく1・とりはく1・ながけ1・なく5・なげく26・なつく2・なづく1・はく2・はささく1・はたけ1・はるけし1・ひく1・ふく3・ふく(하2단동사)6・ふみたひらぐ1・ふりさく9・ほけ1・まく1・まく(하2단동사)1・まけ6・まけばしら1・まつかけ2・みけ1・むく2・むけ1・むなわく1・やく1・야ますげ1・ゆく12・ゆたけ시2・ゆひつく1・ゆふけ2・よけ1・와く1・와케4・와와く1・拔氣大首(인명)1

원자료의 성격을 떠나 본고에서는 과연 최종적으로 편찬을 누가 하였는가 萬葉假名字의 사용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그에 따라 가설적으로나마 시기구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편찬자에 대하여 간단히 언급하면 필자는 기존의 大伴家持 편찬설에 동의한다. 그 이유는 뒤에서 언급하겠지만 大伴家持는 氣의 ケ乙類와 ゲ乙類의 사용빈도가 94:40으로 약 7:3의 비율을 보이고 있는데, 東歌에서는 케乙類:게乙類가 25(61%):16(39%)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⁸⁾ 다시 말하면 제1기와 제2기에는 氣가 게乙類로 사용된 예가 전혀 없는데 東歌에는 萬葉集 전체의 게乙類 사용예 85예 중 16예 즉 18.9%나 보이므로 제1기나 제2기에 속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제3기의 경우 氣가 28예 나타나는데 그 중 케乙類는 東歌 16예를 제외한 게乙類의 사용예 69예 중 2예 즉 2.9%에 불과하므로, 18.9%나 보이는 東歌는 그 편찬 시기가 제4기에 속한다는 것을 말해준다고 할 수 있다. 제4기는 바로 大伴家持의 시기와 일치한다. 따라서 氣의 사용 실태에 한정하여 말한다면 東歌는 大伴家持가 편찬한 것은 분명한 것 같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東歌를 제4기로 분류하여 분석하기로 한다.

4.3 음차자 氣의 분석

萬葉集에서 微韻의 대표자인 氣가 처음 사용된 가요는 권1 60번으로 작자는 長皇子(나가노미코)인데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暮相而 朝面無美 隱爾加 氣長妹之 廬利爲里計武(暮に逢ひて朝面無み隱にか日長く妹が廬せりけむ)

8) 국명(國名)이 확실한 것은 23예이며, 국명을 알 수 없는 것이 18예로 케乙類와 게乙類의 빈도는 각각 18(이중 上つ毛野의 케의 표기로 11예 보인다):5와 7:11을 보인다. 그 예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국명 알 수 있는 케乙類 18(上つ毛野 11예 포함)예:3348-佐欲布氣爾家里/3352-奈久許惠伎氣婆/3356-氣爾餘婆受吉奴/3362-[左注]伎美我名可氣弓/3397-比氣波多延須禮/3399-久都波氣和我世/3404-可美都氣努/3405-可美都氣努/3405-可美都氣乃 /3406-可美都氣野/3407-可美都氣努/3415-可美都氣努/3416-可美都氣努/3417-可美都氣努/3418-可美都氣努/3420-可美都氣努/3423-可美都氣努/3479-久左祢可利曾氣

◎국명 알 수 있는 게乙類 5예:3357-伊毛我奈氣可牟/3369-麻萬能古須氣乃/3396-之氣吉許能麻欲/3447-久佐可氣乃/3564-古須氣呂乃

◎국명 알 수 없는 케乙類 7예:3459-伊祢都氣波/3464-之氣吉爾餘里弓/3465-比毛登伎佐氣弓/3469-由布氣爾毛/3474-宇惠太氣能/3492-伊氣能都追美爾/3569-多知之安佐氣乃

◎국명 알 수 없는 게乙類 11예:3445-多麻古須氣/3456-思氣久等母/3459-等里弓奈氣可武/3474-伊毛我奈氣可牟/3498-根夜波良古須氣/3524-奈氣伎曾安我須流/3538-古麻乎波左佐氣/3556-比登其等思氣志/3573-夜麻可都良加氣/3573-衣我多奇可氣乎/3577-夜麻須氣乃

이 가요에 쓰인 氣는 ㄱ(日)로 時代別國語大辭典上代編의 정의에 의하면 ‘① 時間の單位としての日。日かず。②ひる。昼間。朝ニケニという句で、朝毎に日毎にの意に使われる。’와 같은데 이 가요는 歌意로 보아 ①의 의미로 쓰였다. 그런데 이 가요는 萬葉集의 시기구분에 의하면⁹⁾, 제2기(673~710년)에 속하므로 가장 이른 시기의 가요는 다음의 磐姫皇后(이와노히메황후)의 가요를 들 수 있다.

君之行 氣長成奴 山多都祢 迎加將行 待爾可將待(君が行き日長くなりぬ山たづね迎へか行かむ待ちにか待たむ 2-85)

즉, 氣가 쓰인 最古의 가요에도 ㄱ을류로 쓰인 것이다. 氣가 청음으로 쓰인 것은 본래 氣가 차청자(溪母 去既切 說文本音歛; 歛자는 曉母 許既切)이기 때문에 탁음인 ㄱ乙類로 쓰이지 않은 것은 당연하다. 물론 曉母자로 본다고 하여도 曉母 또한 무성음이기 때문에 ㄱ乙類로 쓰이기 어렵다. 그런데 다음 가요를 보면,

...伊乃知多延奴禮 立乎杼利 足須里佐家婢 伏仰 武祢宇知奈氣吉 手爾持流 安我古登婆之都 世間之道(...命絶えぬれ 立ち躍り 足摩り叫び 伏し仰ぎ 胸うち嘆き手に持てる 吾が兒飛ばしつ 世間の道 5-904)

嘆きの 표기로 奈氣吉, 즉 /gë/의 표기자로 氣를 사용하고 있다. 작자는 山上憶良(아마노우에노 오쿠라)로 그는 중국 유학 경험이 있는 歌人으로 특히 당시 중국 북방음의 현격한 변화 소용돌이의 한가운데 있었던 長安(츠양안)에서 최소한 2년 이상을 머물렀는데, 그런 그가 /kë/만이 아니라 /gë/의 표기로 氣를 사용한 것이다.¹⁰⁾

稻岡耕二(이나오카 코우지 1986:397-421)에 의하면 이 가요를 포함한 戀男子名古日歌三首(권5 904~906)는 서사자(書寫者)가 憶良의 다른 가요와 동일인이 아니며, 편찬자인 家持로 추정하였다. 그 근거는 첫째 ㄴ의 갑을류의 구분이 거의 지켜지지 않았다는 사실, 둘째 다른 가요에는 보이지 않는 특수 자모(즉 음차자)가 집중적으로 나타난다는 사실, 셋째 取る의 卜(/to/)의 표기에 을류인 ㄹ을 사용함으로써 고어의식이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들고, 서사자가 大伴家持라는 근거 네 가지를 제시하였다. 첫째 萬葉集의 편찬론, 둘째 자모의 선택

9) 澤瀉久孝・森本治吉 『作者類別年代順万葉集』에 의하면 ‘제1기 ~672년, 제2기 673년~710년, 제3기 711년~733년, 제4기 734년~759년’으로 구분하였다.

10) 만일 山上憶良가 당시 중국의 현지음을 반영하였다면 /gë/의 표기자로 아마도 차탁음 [ŋ]을 지닌 자를 사용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그의 표기자를 모두 검토해 보면 당시 중국음의 반영 보다는 당시 일본에서 행해지던 표기 방식을 거의 그대로 준수한 것으로 보인다.

이 권17-권20에 쓰인 大伴家持의 자모와 거의 같다. 즉, 戀男子名古日歌에 쓰인 83자중 중 81자가 大伴家持가 사용한 자모와 일치한다. 셋째 山上憶良가 철저히 지켰던 모의 갑을류 구별 표기가 없고, 오쿠라의 고어의식을 반영한 갑류 取り의 /to/의 표기로 登利毛知와 같이 을류인 登을 사용하였으며, 넷째 표의자인 之의 사용을 들었다. 이상과 같은 稻岡耕三의 설에 의하면 嘆きの /gë/의 표기로 氣가 사용된 것을 이해할 수가 있다. 즉 大伴家持가 표기하였기 때문에 청음으로 쓰여야 할 氣가 탁음으로도 사용된 것이다.

그러면 萬葉集 내의 음차자 氣의 사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자. 萬葉集에서 氣는 총 332회 보이는데 그 중 ケ乙類가 247회, ゲ乙類가 85회를 차지하고 있다. 澤瀉久孝의 萬葉集 시기구분에 의해 분석을 하면 케乙類에는

제1기 케을류:氣長成奴(2-85 磐姫皇后)/氣長久成奴(2-90 磐姫皇后)/都良絃取波氣(2-99 久米禪師)/長氣乎(4-484 難波天皇妹)/氣乃己呂其侶波(4-487 舒明)

제2기 케을류:氣長妹之(1-60 長皇子)/多氣婆奴禮(2-123 三方沙彌)/氣田敷藻(2-194 柿本人麻呂)/氣竝而(3-263 刑部垂麻呂)/八船多氣(7-1266 古歌集)/[題詞]拔氣大首(9-1767 拔氣大首)/眞氣長(10-2016 柿本人麻呂歌集)/氣長物乎(10-2017 柿本人麻呂歌集)/祢能未之奈氣婆(20-4479 藤原氷上夫人)

작자·연대불명:麻氣者失留(7-1416)/長氣(10-1860)/氣長物乎(10-2038)/氣長物乎(10-2039)/眞氣長(10-2073)/氣長有者(10-2278)/[左注]或本歌曰氣長戀之(11-2614)/眞氣長(11-2814)/眞氣永(11-2815)/左夜氣久清之(13-3234)/振左氣見者(13-3280)/此羈之氣爾(13-3346)/此羈之氣爾(13-3347)/[左注]或本歌曰羈之氣二爲而(13-3347)

와 같이 제1기에 5예, 제2기에 9예, 작자·연대불명이 14예가 있다. 그리고 다음 가요는 권20 4480번 가요인데, 左注에 보는 바와 같이 전승되던 古歌를 大原今城(오오하라노 이마키)가 읊은 것으로

可之故伎也 安米乃美加度乎 可氣都禮婆 祢能未之奈加由 安佐欲比爾之豆 [作者未詳](畏きや天の御門をかけつれば哭のみし泣かゆ朝夕にして)
左注:右件四首傳讀兵部大丞大原今城

와 같이 1예가 나타난다. 제3기는 25예, 제4기는 원칙적으로 작자·연대불명으로 보아야 할 권14의 東歌를 편찬자인 大伴家持의 표기 개입¹¹⁾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제4기로 분류하면 193예가 나타난다.

게乙類에는 다음의 권16 3881번 가요의 예와 같이

11) 坂本信幸(1970:48)·稻岡耕二(1996:72) 참고.

大野路者 繁道森徑 之氣久登毛 君志通者 徑者廣計武(大野路は繁道森路繁
くとも君し通はば道は廣けむ)

단 1예만이 작자·연대불명이며, 제1기와 제2기의 가요는 단 한 예도 없다.
제3기는

武祢宇知奈氣吉(5-904 山上憶良)/汗可伎奈氣(9-1753 高橋蟲麻呂歌集)/思氣家禮
婆可聞(17-3929 坂上郎女=大伴坂上郎女)

와 같이 3예가 존재하며, 제4기는 東歌를 포함하면 81예가 보인다. 이미 앞에서 언급한 山上憶良의 904번 가요는 서사자가 大伴家持로 추정되므로 표기방식만을 고려하면 제4기에 넣을 수가 있다. 따라서 제3기는 2예에 불과하며, 위의 3881번 가요는 氣가 ケ乙類 로 사용된 점에 비추어 제3기 내지는 제4기에 속할 것으로 추정되지만, 제4기가 압도적으로 많은 점을 고려하면 제4기에 속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氣가 ケ乙類 와 ゲ乙類 의 혼용이 나타나는 것은 萬葉集의 시기구분에 의하면 제3기, 특히 제4기에 속한 가요에만 집중되기 때문에 서론의 보주의 주장처럼 단순히 구별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또한 品田悅一(1986)의 “I 群Bに属する歌々において原資料段階から清濁に両用されていたと認められる音仮名は「氣」「ㄱ」「倍」の三種のみとなる。「氣はケとゲ、倍はへとべ、ㄱはテとデに両用されていて、区別がない。」と言われるように、右の三者は、万葉集全体を通じて清濁に両用される代表的な仮名字母なのであった。”와 같은 주장처럼 萬葉集 전체를 통해서가 아니라, 구별이 철저히 지켜지다가 중국 본토의 음의 변화를 수용한 결과 자연스럽게 제3기 특히 제4기에 와서 구별이 깨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사실은 萬葉集의 시기구분이 상당히 유효하다는 점을 뒷받침해준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같은 가요 내에서 氣의 ケ乙類 와 ゲ乙類 의 혼용 양상은 다음과 같이 총 17수 43예가 보인다.

大伴家持:麻氣乃麻爾末爾(任けのまにまに)/氣奈我枳物能乎(日長きものを)/敷美
多比良氣受(踏み平げず)/安禮爾都氣都流(吾に告げつる) 17-3957; 多麻久之氣
(玉匣)/布里佐氣見禮婆(振り放け見れば)/加氣氏之努波米(懸けて賞美はめ)
17-3985; 布祢宇氣須惠氏(舟浮け据ゑて)/見乃佐夜氣吉加(見の清けきか)/多麻
久之氣(玉匣) 17-3991; 佐波爾由氣等毛(多に行けども)/布利佐氣見都都(振り放
け見つつ)/比等爾母都氣牟(人にも告げむ) 17-4000; 鈴登里都氣ㄱ(鈴取り付け

て)/吾爾波都氣受(われには告げず)/可氣理伊爾伎等(翔り去にきと)/氣太之久毛(けだしくも)/伊麻爾都氣都流(夢に告げつる) 17-4011; 欲和多之伎氣騰(夜渡し聞けど)/字知奈氣伎(うち嘆き) 18-4089; 可伎母氣頭良受(搔きも梳らず)/奈氣久良牟(嘆くらむ) 18-4101; 奈氣加須古良(嘆かす子ら)/布祢毛麻宇氣受(船も設けず)/布里左氣見都追(ふり放け見つつ) 18-4125; 伊田弓伊氣婆(出でて行けば)/奈氣伎家牟都麻(嘆きけむ妻) 20-4332; 伊氣美豆爾(池水に)/可氣左倍見要氏(影さへ見えて) 20-4512

- 東歌:伊祢都氣波(稻春けば)/等里弓奈氣可武(取りて嘆かむ) 14-3459
 葛井子老:都藝弓伎奈氣婆(續ぎて來鳴けば)/比登乃奈氣伎波(人の嘆は) 15-3691
 狹野弟上娘子:多麻久之氣(玉匣)/安氣弓乎知欲利(明けてをちより) 15-3726
 土師道良:欲波布氣奴良之(夜は更けぬらし)/多末久之氣(玉匣) 17-3955
 大伴池主:奈氣可久乎(嘆かくを)/多牟氣能可味爾(手向けの神に) 17-4008
 田辺福麻呂:多麻久之氣(玉匣)/伊都之可安氣牟(いつしか明けむ) 18-4038
 甘南備伊香:伊蘇可氣乃(磯影の)/美由流伊氣美豆(見ゆる池水) 20-4513

여기에는 14-3459의 東歌를 제외하면, 大伴家持의 10수 29예 이외에, 6수 12예가 葛井子老·狹野弟上娘子·土師道良·大伴池主¹²⁾·田辺福麻呂·甘南備伊香와 같이 6명의 작자에 의해서도 나타난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혼용 양상이 상당수의 예를 차지하고 있는 大伴家持만이 아니라 다른 작자에서도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제4기에 아주 일반화된 현상이었다는 것을 보여 준다.

氣의 ケ乙類와 ゲ乙類의 사용 빈도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권수	케을류	케을류의 비교	게을류	게을류의 비교
1	1	제1기	0	
2	5	제1기-3;제2기-2	0	
3	2	제2기-1;제4기-1	0	
4	6	제1기-2; 제3기-2; 제4기-2	0	
5	16	제3기	1	제3기⇒제4기
6	3	제3기	0	

12) 木下正俊(키노시타 마사토시 1963)에 의하면 권17 이후의 賀의 사용 실태는 <大伴家持-칭음 카(15예)>, <大伴池主-탁음 가(13예)>로 賀의 사용이 칭음과 탁음으로 엄격하게 분리 사용된 것으로 보아 大伴池主가 기록한 것을 편찬 당시에 大伴家持가 그대로 끼워 넣은 것으로 파악하였는데, 大伴池主는 氣의 경우 케乙類와 게乙類가 9:4로, 혼용하고 있는 비율이 大伴家持와 비슷하여 賀의 경우와 상당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 사실에 의해서도 제4기의 氣의 혼용 양상의 일반화를 볼 수 있다. ◎케乙類 9예:17-3949-比母登吉佐氣氏/17-3993-和賀己藝由氣婆/17-4003-知邊乎於之和氣/17-4003-於等母佐夜氣久/17-4004-氣受弓和多流波/17-4008-多牟氣能可味爾/18-4130-應婢都都氣奈我良/18-4130-天良佐比安流氣騰/20-4295-比毛等伎安氣奈 ◎게乙類 4예:17-3973-奈氣可布和賀勢/17-3975-保可爾奈氣加布/17-4008-奈氣可久乎/18-4075-奈氣伎和多流香

7	2	제2기-1;작자연대불명-1	0	
8	2	제3기	0	
9	2	제2기-1;제3기-1	1	제3기
10	7	제2기-2;작자연대불명-5	0	
11	3	작자연대불명	0	
12	0		0	
13	5	작자연대불명	0	
14	25	제4기	16	제4기
15	32	제4기	11	제4기
16	1	제4기	1	작자연대불명⇒제4기
17	39	제4기	23	제4기(제3기-1)
18	22	제4기	11	제4기
19	17	제4기	3	제4기
20	57	제4기(제2기-1;제3기-1)	18	제4기
합계	247		85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케乙類의 경우 소수의 제3기와 작자·연대불명의 가요를 제외하면, 권14-15와 권17-20에 집중적(84회 중 81회)으로 사용된 것을 볼 수 있다. 권14-15와 권17-20에 대응되는 케乙類는 247회 중 189회로 케乙類:게乙類는 70%:30%로 케乙類가 많이 사용되었다. 한편 大伴家持의 경우 총 134예 중,

권 \ 갑을	케乙類	게乙類
5	1	0
17	28	17
18	19	8
19	16	2
20	30	13
합계	94	40

표와 같이 케乙類와 게乙類는 94회:40회로 그 비율은 70.1%:29.9%이므로 萬葉集 전체의 비율과 거의 일치함을 보여 주고 있다.

이상과 같이 케乙類의 사용은 96.5%(85회 중 82회)가 제4기에 속하는데 그렇다면 왜 제4기에 집중되는 것일까? 이것은 당대 북방 중고음의 탁음청화(濁音清化 devoicing)를 잘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당대 북방음에서는 본래 탁음이었던 성모가 청음으로 변하여 결국 유성음이었던 성모가 무성음화하였기 때문에, 전청(全清) 見母字와 차탁(次濁) 溪母字가 전탁(全濁) 群母字와 구별이 되지 않게 되자 溪母字인 氣가 케乙類로도 사용된 것이다.

이와 같은 사실을 뒷받침해주는 자료로 歌經標式을 들 수 있다. 歌經標式에

는 氣가 총 13회 보이는데

ケ乙類:比爾計爾不氣馬/何氣弓俱美陀利/比爾計爾不氣馬/已氣牟須麻弓爾/阿氣伊
 弓努己能唵/他牟氣俱佐/可是不氣婆
 ゲ乙類:呼可爾可氣那旨/可氣爾与計牟母/可氣佐倍美由留/古長韻以阿麻俱母能爲
 一句何氣佐倍美由留爲一韻/故阿麻俱母能何氣佐倍美由留等十二字爲一句
 ケ甲類:可志己氣无

와 같이 케乙類 7회, 게乙類 5회, 케甲類 1회가 사용되었다. 歌經標式은 성립연대가 771년으로 추정되며 상대특수카나사용법이 상당히 붕괴해가는 양상을 보여주는데, 可志己氣无의 형용사 カシコシ의 미연형 カシコケ의 케는 갑류표기, 즉 家·計·鷄·祁·介(19-4235 可之古家米也母 畏けめやも) 등과 같은 자들이 사용되어야 하나, 여기에서는 을류인 氣가 사용되어 그 혼용 양상을 볼 수 있다. 이 1예를 제외하면 12예 중 5예나 유성음 게乙類의 표기에도 쓰인 것은 歌經標式의 성립연대가 이미 당대 북방음을 상당히 반영하고 있는 시기라는 점에서 주로 제4기에 나타나는 萬葉集의 게乙類의 사용과 궤를 같이하고 있다. 그 밖에 위의 예에서는 馬가 바로 사용된 점은 당대 북방음의 비비음화(非鼻音化 denasalization)를 보여주며, 탁음 匣母字 何와 定母字 陀가 각각 카와 타로 무성음 표기에 사용되었고, 청음 見母字 俱와 端母字 弓(氏)가 각각 그와 데로 유성음 표기에 사용되어 그 혼용 양상을 보여주며, ノ甲類로 쓰이는 努가 ㄹ로 쓰인 사실도 볼 수 있다.

5. 한국 자료의 氣

삼국사기의 백제본기에 다음과 같은 기사에 의하면,

武寧王, 諱斯摩或云隆, 牟大王之第三子也. 身長八尺, 眉目如畫, 仁慈寬厚, 民心歸附.

무녕왕의 휘가 斯摩라고 보이며, 武寧王誌石(聖王 원년 523년)에는

寧東大將軍, 百濟斯麻王, 年六十二歲, 癸卯年五月丙戌朔七日壬辰崩.

와 같이 斯麻로 기록되어 있다. 여기에 쓰인 斯는 삼국사기 지명에 많이 보이는

데 예를 들면

고구려:童子忽縣一云仇斯波衣, 童城縣, 本高句麗童子忽一云幢山縣縣/夫斯波衣縣一云仇史峴, 松峴縣, 本高句麗夫斯波衣縣/猪迺穴縣一云烏斯押, 參狻縣, 本高句麗猪迺穴縣

백제:完山一云比斯伐, 一云比自火

신라:火王郡, 本比自火郡一云比斯伐

과 같이 고구려, 백제, 신라 모두에 사용된 음차자임은 주지하는 바와 같다.¹³⁾ 그런데 이 斯는 萬葉假名로써는 그 표기 방식의 기원이 한반도계의 표기 방식의 영향이라는 사실은 명백하다.¹⁴⁾ 그렇다면 氣는 한반도와의 영향 관계는 어떠했을까 간단히 살펴보기로 하자.

삼국사기에는 氣가 43예 보이는데

十七年冬十月, 東南有白氣如匹練.(권2 신라본기 助賁尼師今 17년)

十二年秋八月, 雲起狼山, 望之如樓閣, 香氣郁然, 久而不歇.(권3 신라본기 實聖尼師今 12년)

王遣庾信率步騎一萬以拒之, 苦戰氣竭.(권5 신라본기 眞德王 원년)

左將軍品日, 喚子官狀一云官昌, 立於馬前, 指諸將曰吾兒年纔十六, 志氣頗勇, 今日之役, 能爲三軍標的乎(권5 신라본기 太宗武烈王 7년)

와 같이 白氣·香氣·志氣 또는 단독으로 氣의 의미인 훈독자로 41예가 쓰였으며, 지명표기로는 삼국의 지명 중 위치가 분명하지 않고 이름만 남아 있는 예(三國有名未詳地分)로 권37에 脣氣成과 遊氣山の 2예만이 보인다. 이 두 예의 정확한 표기방식은 알 수 없지만 훈독자의 표기로 추정된다. 삼국유사에는 총 18예가 나타나는데 인지명 표기에는 전혀 쓰이지 않고 異氣·香氣·膽氣·聲氣·春氣·雲氣 또는 단독으로 훈독자로만 사용되었다. 향가의 경우에는 예가 하나도 없으며, 금석문의 경우

13) 다만 향가에서는 止攝 支韻 개구4등 평성자인 斯(息移切)는 보이지 않으며 상성자인 徙(斯氏切)도 쓰이지 않았고, 거성자인 賜(斯義切)만이 28예 보인다. 賜는 斯와 반대로 삼국사기 인지명 표기에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賜는 斯와 사용 시기를 달리하여 斯⇒賜의 표기 변화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참고로 萬葉假名에서는 賜는 음차자로 사용된 예가 전혀 없으며 한반도의 표기법인 존칭선어말어미 ‘시’에 대응하는 ‘타마フ’의 표기로 많이 사용되었다. 이돈주(1990:72-89) 안희정(2004:210-241)·藤井茂利(후지이 시게토시 1996:114-142) 참고.

14) 大野透(1962:161):斯は古層の假名で、7世紀末頃までは常用されたと考へられるが、8世紀には次第に多用されない様になつてゐる。朝鮮固有名表記に音字の斯が少くなく、又書紀引用の朝鮮史書等の文に於る日本固有名表記に音字の斯が見えるので、斯の假名の使用は韓人の字音表記に影響されて生じたのであらう。

殘(賊)不服義(氣),敢出百(□)戰,王威赫怒,渡阿利水,遣刺迫城.(廣開土王陵碑)
方券跡停烽罷候,萬里澄氣克勤開.(文武王陵碑)
乙丑年九月中沙喙部于西□夫智倭珠干支妻夫人阿刀郎女谷見來時前立人 附?□氣?
乙□居□ □悉工裁?(蔚州川前里書石乙丑銘)

와 같이 3예가 보이지만, 광개토왕릉비의 경우는 판독자에 따라 義와 氣로 나뉘어 있는데 음차자일 가능성은 희박하며, 문무왕릉비는 혼독자로 쓰였고 천전 리서석은 의미를 알 수가 없다.

이상과 같이 한국 자료에 의하면 氣는 음차자로 거의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미루어 보아, 萬葉假名 氣는 한반도의 영향과는 관계가 없이 일본에서 자생적으로 발달한 음차자라고 할 수 있다.¹⁵⁾

6. 결 론

고대 일본 자료와 고대 한국 자료에 반영된 음차자 氣의 사용 실태를 검토해 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 1)고대 일본 자료에서 음차자 氣는 ケ乙類와 ゲ乙類로 쓰였는데 특히 萬葉集에서 혼용된 것은 萬葉集 전체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제3기 이후 특히 제4기에 96.5%(85회 중 82회)로 집중되었다.
- 2)같은 가요 내에서 氣가 ケ乙類와 ゲ乙類로 동시에 나타나는 작자는 大伴家持 이외에도 葛井子老·狹野弟上娘子·土師道良·大伴池主·田辺福麻呂·甘南備伊香와 같이 6명이나 보이므로 혼용 양상은 제4기에 아주 일반화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 3)氣가 ゲ乙類 표기자로 사용된 것이 제3기 이후라는 사실은 당대 북방 중고음의 탁음청화 현상을 반영한 것이다.
- 4)상당수의 萬葉假名字가 한반도의 영향을 받았으나, 氣의 사용은 한반도의 영향 없이 일본에서 독자적으로 발달하였다.

氣는 溪母字로 次清 즉 [k']로 추정되는데, 萬葉假名에서 /kè/만이 아니라 /gè/로도 반영되었다. 그런데 운모의 경우 /i/로 반영된 것은 日本書紀에 불과 2예가 보일뿐 모두 /è/로만 쓰였다는 점에서 氣는 중고음 이전의 반영으로 보이는데, 중고음 이전이라는 사실은 차청자이므로 유성음 /gè/로 반영될 가능성

15) 한국에서 氣가 음차자로 사용되지 않은 반면 일본에서는 사용된 이유는 무엇일까? 이것은 각 나라의 음운체계의 차이 또는 중국음과의 관계에 의할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후고로 미룬다.

은 전혀 없다. 氣가 /gë/로도 반영되기 위해서는 한음 시기에 와야 하고 한음 시기라는 것은 운모가 /ë/가 아니라 /i/로 반영될만한 韻으로 이미 중국에서 음의 변화가 이루어진 시기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성모는 한음성, 운모는 중고 음 이전의 음을 반영하고 있는 아주 특이한 현상을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다음 과제로는 이와 같은 문제를 포함하여 고대 한·중·일 자료, 그리고 베트남과 티벳 한자음 자료를 토대로 微韻 중고 재구음과 당대 북방 중고음을 재구하기로 한다.

【参考文献】

- 김대성(2003) 『고대 일본어의 음운에 대하여』, 제이앤씨. p.106-107
- 김용옥(1992) 『동양학 어떻게 할 것인가』, 통나무. p.349-361
- 安熙貞(2004) 『古代日本語の用字法研究』, 제이앤씨. p.210-241
- 李敦柱(1990) 「郷歌 用字 中の ‘賜’字에 대하여」, 국어학 제20집. 국어학회. p.72-89
- 한국고대사회연구소편(1992) 『역주한국고대금석문 I (고구려·백제·낙랑 편)』, 가락국사적개발연구원.
- 한국고대사회연구소편(1992) 『역주한국고대금석문 II (신라1·가야 편)』, 가락국사적개발연구원.
- 稲岡耕二(1986) 『万葉表記論』, 塙書房. p.397-421
- 稲岡耕二(1996) 「書評·井手至著『遊文録 万葉篇一』を読む」, 万葉 第157号. 万葉学会. p.67-78
- 大野透(1962) 『万葉仮名の研究』, 明治書院.
- 沖森卓也外(1993) 『歌經標式·注釈と研究』, 桜楓社.
- 沢瀉久孝(1990) 『万葉集注釈一卷第十四一』, 中央公論社. p.80-82
- 木下正俊(1963) 「二つの「賀」から」, 万葉 第46号. 万葉学会. p.13-19
- 倉野憲司外(1958) 『古事記·祝詞(日本古典文学大系)』, 岩波書店.
- 小島憲之外(1994-1996) 『万葉集(新編日本古典文学全集)』, 小学館.
- 小島憲之外(1994-1998) 『日本書紀(新編日本古典文学全集)』, 小学館.
- 後藤利雄(1963) 「黄葉片々 履はけ我が背」, 万葉 第49号. 万葉学会. p.51-54
- 坂本太郎外(1965-1967) 『日本書紀(日本古典文学大系)』, 岩波書店.
- 坂本信幸(1970) 「万葉集卷十四東歌私見」, 万葉 第73号. 万葉学会. p.40-53

- 佐藤通次(1976) 『言(ことば)の林 -言の原点と解釈-』, 日本教文社.
- 品田悦一(1986) 「万葉集卷十四の原資料について」, 万葉 第124号. 万葉学会. p.1-15
- 上代語辞典編修委員会(1994) 『時代別国語大辞典上代編』, 三省堂.
- 上代文献を読む会(1989) 『古京遺文注釈』, 桜楓社.
- 高木市之助外(1957-1962) 『万葉集(日本古典文学大系)』, 岩波書店.
- 鶴久外(1995) 『万葉集』, おうふう.
- 荻原麻男外(1976) 『古事記・上代歌謡(日本古典文学全集)』, 小学館.
- 福田良輔(1952) 「仮名字母より見たる万葉集卷十四の成立過程について」, 万葉 第5号.
万葉学会. p.58-67
- 福田良輔(1980) 『奈良時代東国方言の研究』, 風間書房.
- 藤井茂利(1996) 『古代日本語の表記法研究』, 近代文芸社. p.114-142
- 森山隆(1971) 『上代国語音韻の研究』, 桜楓社. p.188-210
- 山口佳紀外(1998) 『古事記(新編日本古典文学全集)』, 小学館.
- 王力(1985) 『汉语语音史』, 中国社会科学出版社. p.155
- 周祖謨(1996) 『魏晉南北朝韻部之演變』, 東大圖書公司.

要 旨

The aim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reasons why Man'yōgana 氣 represented two borrowed sounds /kë/ and /gë/ in Old Japanese literature. In Old Japanese Japan had no its own writing system which caused it to use Chinese characters to express its language. Therefore, Japanese had to depend on Chinese characters, one of which was 氣. 氣 was semi-voiceless in Ancient Chinese, which means voiceless and aspirated stop. However, Japanese used it not only as an unaspirated stop but as a voiced one. Preceding studies have shown that the voiced usage of 氣 was general phenomenon in Man'yōshū. But I thought there must have been certain reason or reasons different from 'general'. So I studied on this phenomenon in Old Japanese literature.

After analyzing the usages of 氣, I have reached the following conclusions :

- 1) In Old Japanese literature 氣 had two borrowed sounds /kë/ and /gë/. However, the two sounds were not used through the division of historical periods concerning the Man'yōshū or A Collection of a Myriad Leaves, but during the third period (711-733 A.D.), especially the fourth period (734-759 A.D.) with the rate 96.5%, that is, 82 examples among 85.
- 2) We can say that generally the two usages in 氣 appeared in the fourth period, because 6 poets, except Ōtomo-no-Yakamochi, made use of 氣 as /kë/ and /gë/ even in the same poems.
- 3) The fact 氣 represented /gë/ in the Old Japanese literature means that it reflected the devoicing of initials during the Tang Dynasty(618-907 A.D.) in the North.
- 4) Many Man'yōgana were under the influence of Korean writing system which employed Chinese characters to represent the Korean language, but the 氣 evolved itself in Japan without its influence.

キーワード : 氣, /kë/, /gë/, division of historical periods,
 sounds of Tang Dynasty in the North,
 poems of the East, poems of frontiersmen

투 고 : 2008. 2. 29
1차 심사 : 2008. 3. 15
2차 심사 : 2008. 3. 29

住 所 : (500 - 757)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동 전남대학교 인문대학 일어일문학과
電 話 : 062-530-3213
e-mail : hanbyeol@chonnam.ac.kr